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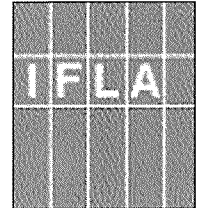
“

1. National Libraries Section (국가도서관 분과)

2 University Libraries and other General Research

Libraries Section (대학·연구도서관 분과)

3. Library and Research Services for Parliaments (의회도서관 분과)



”

작년 한해 '해외도서관 사정' 지면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도서관인들의 도움으로 꾸며졌다. 올해는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모임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산하조직인 47개 분과(Section)와 4개의 토론그룹(Discussion Groups)의 역할과 활동을 간략히 살펴보는 지면을 마련하여, 범지구적인 도서관계의 고민과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한편 1년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을 모으는 시간을 갖 고자 한다. ■ 편집자 주

1. IFLA의 조직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Council), 전반적인 행정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회(Governing Board),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등과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도서관과 관련한 주제별 전문적인 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위원회(Professional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위원회는 8개의 부회(Divisions) 아래, 47개의 분과(Sections)와 4개의 토론그룹(Discussion Group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IFLA 부회, 분과, 토론그룹 명단

Division I: General Research Libraries (일반연구도서관)

Sections:

1. National Libraries (국가도서관)
2. University Libraries and other General Research Libraries (대학·연구도서관)
3. Library and Research Services for Parliaments (의회도서관)

Discussion Group:

Quality Issues in Libraries (도서관 서비스의 '질' 적인 문제)

Division II: Special Libraries (전문도서관)

Sections:

- 4. Government Libraries (정부도서관)
- 5. Social Science Libraries (사회과학도서관)
- 6. Geography and Maps Libraries (지리·지도도서관)
- 7.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 (과학·기술도서관)
- 28. Health and Biosciences Libraries (보건·생물도서관)
- 30. Art Libraries (예술도서관)
- 37. Genealogy and Local History (족보·지역사도서관)

Discussion Group:

- Law Libraries (법률도서관)

Division III: Libraries Serving the General Public (공공·학교도서관)

Sections:

- 8. Public Libraries (공공도서관)
- 9. Libraries Serving Disadvantaged Persons (장애자·병원도서관)
- 10.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어린이·청소년도서관)
- 11. School Libraries and Resource Centres (학교도서관)
- 31. Libraries for the Blind (점자도서관)
- 32. Library Services to Multicultural Populations (다문화사회도서관서비스)
- 46. Metropolitan Libraries (대도시도서관)
- 38. Mobile Libraries (이동도서관)

Special Advisor: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brary Centres (국제도서관 센터 협회)

Division IV: Bibliographic Control (서지 통제)

Sections:

- 12. Bibliography (서지)
- 13. Cataloguing (목록)
- 29. Classification and Indexing (분류·색인)
- 47. Knowledge Management (지식경영)

Division V: Collection and Services (장서·봉사)

Sections:

- 14. Acquisition and Collection Development (수집·장서개발)
- 15. Document Delivery and Interlending (상호대차)
- 16. Serials and Other Continuing Resources (연속간행물)
- 39. Newspapers (신문자료)

해외도서관 사정 ⑬

- 17. Government Information and Official Publications (정부출판물)
- 18. Rare Books and Manuscripts (희귀본)
- 36. Reference Works (참고봉사)

Division VI: Management and Technology (관리·기술)

Sections:

- 19.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보존)
- 20. Library Buildings and Equipment (도서관 건물·설비)
- 21.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 22. Statistics and Evaluation (통계·평가)
- 34. Management and Marketing (관리·마케팅)
- 35. Audiovisual and Multimedia (멀티미디어자료)
- 40. Management of Library Associations (도서관협회 운영)
- 41. Women's Issues (여성)

Discussion Group:

- New Professionals (전문직 분야 확대)

Division VII: Education and Research (교육·연구)

Sections:

- 23.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연수)
- 24. Library Theory and Research (도서관 이론·연구)
- 33. Reading (독서)
- 43.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Workplace Learning (지속적인 직무교육)
- 44. Library History (도서관사)
- 45.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문헌정보학 학술지)
- 42. Information Literacy (정보소양)

Discussion Group:

- E-Learning (e-학습)

Division VIII: Regional Activities (지역활동)

Sections:

- 25. Africa (아프리카)
- 26. Asia and Oceania (아시아·오세아니아)
- 27.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라틴아메리카·카리브제도)

어찌 보면 도서관과 관련된 일이 뭐가 그리 많기에 이렇게 복잡한가? 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게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이라는 곳이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규모는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는 47개 분과(Sections)의 업무와 목적, 역할 등을 순서대로(분과·토론그룹 순) 간략히 알아보겠다.

2. 국가도서관 분과(National Libraries)

국가도서관의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 중 하나는 모든 형태의 국가 출판 자료를 보존하고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IFLA 국가도서관 분과회는 각국 국가도서관들이 자국의 지적 전승물을 올바르게 관리, 보존하여 그 사회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세계 어떤 지역에서라도 국가도서관이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사회의 도서관 및 지적 기반은 책의 콩나무가 자라듯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런 과정이 발전의 초석이기에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도서관이 사회 발전 과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위상과 리더십을 갖추어 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IFLA 국가도서관 분과회의 대표적 인 목적이다.

IFLA 국가도서관 분과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국가도서관의 설립과 모든 형태의 미디어에 대한 법률 제정을 장려하고 디지털 시대의 첨병으로서 국가도서관의 정보 활용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토대로 삼는다.
- 국가도서관이 사회 구성원들의 경험을 축적, 공유하는 하나의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국가도서관이 우수모델, 모범사례, 벤치마킹에서 운영관리 기술의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에서의 표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연구, 제공하고 발전시키며 그 기준을 충족시킨다.

이를 위해 IFLA 국가도서관 분과는 성과 측정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지역별 워크숍 조직, ICABS(서지표준을 위한 IFLA와 세계국립도서관장회 연합, IFLA-CDNL Alliance for Bibliographic Standards)와의 협조, WSIS(세계정보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체제 하에서 도서관의 기본적 역할 강화로 회원국 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IFLA 국가도서관 분과에서는 평생교육 및 정보 활용 교육기관의 기능에서 e-learning분야를 더욱 강화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문화유산 보호 대책, 디지털 문화유산에의 접근을 위한 도서관, 문서보관소, 박물관 간의 협력에 대한 것을 다룰 예정이다.

참조 : IFLA 국가도서관 분과 홈페이지(<http://ifla.org/vii/s1/index.htm>)

3. 대학·연구도서관 분과(University Libraries and other General Research Libraries)

2003년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수는 438개였다(2003년도 한국도서관통계). 미국의 학술도서관(대학도

해외도서관 사정 ⑬

서관)의 수는 2,100여개 관에 달한다(http://sunsite.berkeley.edu/Libweb/Academic_main.html). 한국과 미국, 2개 국가의 대학도서관 수만 해도 2,500여개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한 산술적 추론을 하더라도 전 세계 대학도서관의 수는 우리의 상상을 훌쩍 넘는 숫자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연구도서관까지 합치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대학·연구도서관이 존재하며 얼마나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을 것인가.

IFLA 대학·연구도서관 분과는 이들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나눔터인 동시에 상호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들 간에 국제 토론, 공동연구 및 연구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각 지역 전문가들과 경험을 나누며 세계 각지의 전문 도서관인 간에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더 나은 대학·연구도서관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대학·연구도서관 분과는 정보정책 및 핵심 기술 규정을 위한 범세계적인 체제와 도서관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학 및 연구도서관의 발전과 성공적인 경영이 선결되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교육과 연구의 중추 역할을 하는 대학의 기능과 도서관의 통합
- 컴퓨터 관련 각종 분야 및 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의 중추가 되도록 도서관의 역량 집중화
- 급변하는 교육, 전자 교습, 연구 환경 하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모색
- 저작권법 및 각종 협약들이 초래할 변화와 이들이 전자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 미칠 영향 조사
- 대학도서관의 각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조사

참조 : “한국도서관통계 2003”

LiveWeb(http://sunsite.berkeley.edu/Libweb/Academic_main.html)

IFLA 대학·연구도서관 분과 홈페이지(<http://ifla.org/VII/s2/index.htm>)

4. 의회도서관 분과(Library and Research Services for Parliaments)

의회도서관은 일반도서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입법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입법 지원 도서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회도서관의 사서는 필요한 정보를 이용, 가공하는 와중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신속, 정확한 정보와 빠른 조사 결과를 얻고자 쉴 새 없이 뒤달리는 입법 관련자들과 일하노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의회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과 타 분야 도서관 사서들과의 확연한 차이점이며 의회도서관 분과회는 이런 어려움을 오래 전부터 파악하고 이를 조절코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

지난 20~30여 년간 이 분야는 질적인 면은 물론 양적인 면과 그 전문성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했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s)라는 기구가 있어 각종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의 경우 입법 지원 인력은 국회 도서관

내의 입법전자정보실에 있는 24명의 연구관뿐이라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의회도서관 분과는 유럽 지역 의회 및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와 협력하고 있으며 시사 포럼 개최 등 고도로 정보화 되어가는 국제사회에서 입법부 간의 정보 교환과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회도서관 분과는 입법 추진자들이 그들과 정보봉사 사이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각국 의회도서관들의 학술서비스 측면 강화와 지역별 의회도서관 회의의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의회도서관이 한 국가의 입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됨을 격려하고 새로운 의회도서관의 설립과 축적된 경험의 공유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의회도서관 분과의 업무는 상임이사회에 의해 조정되며 의장과 사무관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다.

참조 : 미국 의회도서관 CRS 소개(<http://www.loc.gov/crsinfo/whatscrs.html#about>)

국회도서관 입법정보 서비스(http://www.nanet.go.kr/lawinfo/k03_legintro.html?nav=030102)

IFLA 의회도서관 분과 홈페이지(<http://ifla.org/VII/s3/conten-e.htm>)

4. 마치며

어쩌면 이름만 듣더라도 바로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각 분과가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소재목만 보고도 그 내용을 미리 알아채신 독자도, 각 분과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간략하여 아직까지 감이 안 잡혀 다시 한 번 탐독하시려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전자이던 후자이던 간에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보게 되고 나아가 이 글을 읽는 독자 분들, 도서관인 모두가 그 활동들의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문득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 한마디가 가슴을 치고 간다. [글 :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우리는 말이나 글로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는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삶을 모든 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열린 책이 되게 하라.”



<2월호 소개 분과>

- 정부도서관 분과(Government Libraries)
- 사회과학도서관 분과(Social Science Libraries)
- 지리·지도도서관 분과(Geography and Maps Libraries)